

張介賓의 醫易思想

尹 暢 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內容提要(Abstract)

張介賓(1563~1640)最早使用了醫易之用語, 并將以往至當時的有關醫易研究的內容加以總結, 從而使醫易學獲得大成, 我們對張介賓的醫易思想進行了研究, 得出如下結論:

1. 張介賓爲明代傑出醫家, 他註釋類編內經而著成《類經》和綜合性醫書《景岳全書》時, 運用了很多易學理論, 并在《類經圖翼》中, 以〈醫易義〉爲始, 在〈太極圖論〉, 〈陰陽體象〉, 〈大賓論〉, 〈眞陰論〉等篇中, 專門論述了有關醫易學方面的內容.
2. 張介賓具體論述了醫易相通的內容, 認爲易具醫之理, 而醫得易之用, 從而強調醫生須要學易才能成爲優秀的醫生.
3. 張介賓特別重視陰陽理論, 他提出了陽非有餘論和眞陰不足論, 具體運用了易學之扶陽抑陰和陰陽互根等理論.
4. 張介賓認爲命門爲人體之太極, 乃化生先天無形之陰陽而形成後天有形之陰陽的根源, 進而指出人身之消長變化皆係於此一命門.
5. 張介賓深入研究了河圖, 洛書, 八卦, 六十四卦方圓圖等, 并將之運用於說明人體之生理, 這就成爲他的醫易學的重要特徵, 說明張介賓乃繼承了以往醫家們傳承不已的象數易學之傳統.

1. 序 論

張介賓(1563~1640)의 字는 會卿,(또는 惠卿), 호는 景岳. 別號는 通一子이며 明나라때 山陰 會稽縣(지금의 浙江 紹興市)사람으로 78세를 살았다. 경약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책을 읽음에 章句에 얽매이지 않았고 經史百家의 서적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특히 의학에 정밀하였다. 어릴때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內經을 공부했고 14살 때 아버지를 따라 京師에 갔다. 그의 아버지 壽峰公이 定西侯의 客이 되자 景岳은 術士들과 널리 교류를 하였고 이때 名醫 金世英에게서 의학을 수년동안 배워서 그의 전함을 모두

터득하였다. 장년에 군에 몸담아 北方을 遊歷하여 “出榆關 履碣石 經鳳城 渡鴨綠(榆關은 臨榆關 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山海關이다. 鳳城은 鳳皇城)”하였으며 이때에도 醫名이 당시에 높아 “謁病者 輻輳其門 沿邊大帥 皆遺金幣致之”하고 “以醫術著聲於明萬曆 天啓間”했다는 기록이 있다. 58세(1620년)때 웅대한 뜻은 실현되지도 않고 家貧親老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醫學에 전념하였으며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仲景과 東垣에 비교하였다¹⁾. 그의 저서로는 《類經》《類經圖翼》《類經附翼》《景岳全書》와 《質疑錄》이 있다.

1) 裘沛然 丁光迪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344~345.

景岳은 周易을 깊이 연구하고 哲學 및 道家의 精氣神學說을 융화관통하여 醫易學 方面에서 一家를 이루었다. 이전의 醫家들도 醫易에 관하여 많은 논술을 하였지만 모두 그들의 論著중에 散見할 뿐이고 短論에 불과하였다. 景岳은 前人들의 연구성과의 바탕위에서 醫易同源, 醫易會通, 醫易相關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술을 하였으며 《類經圖翼》중의 《醫易醫》《大寶論》《眞陰論》《太極圖論》《陰陽體象》 등 편을 통해서 醫易學에 관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의 醫易에 대한 깊은 통찰에 대해 葉秉敬도 類經 서문에서 “내가 서문을 쓰는 이유는 그가 내경에 주를 달고 醫易을 밝혔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주역에 주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정자, 주자를 벗어나지 않고 내경에 주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진월인, 왕빙을 벗어나지 않지만 경악은 정자, 주자, 진월인, 왕빙의 4인을 아울러 한사람이 되어 직접 천고를 거슬러 복희 황제의 맥을 이었으니 아마 정자, 주자, 진월인, 왕빙이라도 이를 능가하지를 못할 것이다. (余所序者는 謂其注內經而并著醫易이라. 世之能注易者는 不出于程 朱하고 能注內經者는 不出于秦越人 王太僕이나 景岳一人은 却并程 朱秦王之四人合爲一人하야 而直接羲黃之脈于千古之上하니 恐非程朱秦王所能駕也라)”²⁾고 극찬하고 있다.

이러 장개빈의 醫易學에 관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醫易相通을 밝힘

景岳은 周易의 원리나 의학이론이 모두 음양 二氣의 變化에 근거하고 있어 주역원리가

의학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천지의 도는 음양2기로써 만물을 造化하고 인생의 이치는 음양2기로써 신체를 기른다 《易》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니 음정·양동하는 오묘함을 갖추었고 의학은 생각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니 음양이 소장하는 기를 습하고 있으니 비록 음양이 《內經》 속에 갖추어져 있으나 변화는 《周易》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나 사람이 한 이치인 것은 이 음양인 것이요 의학과 역학이 근원이 같은 것은 이 변화를 함께하는 것이니 어찌 의역이 상통하고 이치가 둘이 없음이 아닌가 (天地之道는 以陰陽二氣而造化萬物하고 人生之理는 以陰陽二氣而長養百骸라 《易》者는 易也니 具陰陽動靜之妙하고 醫者는 意也니 合陰陽消長之機니 雖陰陽이 已備於內經이나 而變化莫大乎 《周易》이라 故曰 天人一理者는 一此陰陽也오 醫易同源者는 同此變化也니 豈非醫易相通이며, 理無二致야)”³⁾하면서 의사는 반드시 주역을 알아야만 한다고 설과 하였다. 이어서 그는 易理의 정밀한 뜻을 습득하여 의학의 變通에 도움을 줄수 있다. (謹據易理精義하야 用資醫學變通이라)고 하였으며 또 인간은 음양 二氣의 정기를 품부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고 天地中和之氣를 타고 나서 乾坤의 化育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天人相應에 대해 四時와 四肢, 天地의 合關과 人身의 呼吸, 主야의 潮汐과 人身의 脈息, 북극성이 天體 움직의 근본이 되듯이 인간의 마음이 한몸의 君主가 됨을 밝히면서 天氣가 곧 人氣이고 人體가 곧 天體로써 人身이 小天地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천지의 이치가 易에 갖추어져 있다면 身心의 이치가 홀로 易에 갖추어지지 않겠는가? 하물며 천지의 역은 外易이고 身心

2) 張介賓. 類經 서술 성보사 1982 p4

3) 何少初편저 古代名醫解周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47

의 易은 內易이니 안과 밖에서 어느것이 더 친하며 자연과 사람에서 어느것이 더 가까운가 그러므로 반드시 나에게서 구한 뒤에 남에게서 구할 수 있으며 안을 먼저한 뒤에 밖으로 미칠 수 있으니 物理의 易은 오히려 느슨히 할 수 있지만 身心의 易은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의도는 身心의 易이니 의사로써 易을 모른다면 그 어찌 행할수 있으리오 (今夫天地之理가 具乎易이면 而身心之理가 獨不具易乎아? 矧天地之易은 外易也오 身心之易은 內易也니 內外孰親이며 天人孰近고 故로 必求諸已而後에 可以求諸人이며 先乎內而後에 可以及乎外니 是物理之易은 猶可緩이어나와 而身心之易은 不容忽이라. 醫之爲道는 身心之易也니 醫而不《易》이면 其何以行之哉리오)"⁴⁾라고 하여 의사는 반드시 易을 알고 의술을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太極, 陰陽, 四象, 八卦, 64괘 등의 分化和 人身과의 관련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爻象, 臟象, 形體, 生育, 精神, 動靜, 昇降, 神機, 屈伸, 變化, 常變, 鬼神, 死生, 疾病등을 周易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여 醫易學의 대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중 臟象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乾卦는 양으로 腑를 배합하고 坤卦는 음으로 臟을 배합하였는데 高下에 따른 배합은 다음과 같다.⁵⁾

上九	☰	三焦
九五	☷	胃
九四	☱	膽
九三	☲	小腸
九二	☵	大腸
初九	☶	膀胱
上六	☰	肺

六五	☱	心
六四	☷	脾
六三	☲	肝
六二	☵	腎
初六	☶	命門

결론적으로 그는 “易은 의학의 이치를 갖추고 있고 의학은 易의 활용을 얻은 것이다(易具醫之理 醫得易之用)”라고 하였고 醫師로서 易學원리의 운용은 “8자의 나무를 움직여 만곡의 배를 움직이고 한 촌의 고동을 당겨 천군의 쇠뇌를 발사(運一尋之木하야 轉萬斛之舟하고 撥一寸之機하야 發千鈞之弩)”⁶⁾하는 효과 있으므로 不知易이면 不足以言太医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III. 陰陽理論의 醫學的 活用

陰陽學說의 기본적인 내용은 《內經》에 실려 있지만 景岳은 여기에 易의 哲學을 결합하여 독특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陰陽一體思想을 強調하고 있다.

內經에서는 陰陽의 통일체로서의 太極에 대한 언급이 없다. 景岳은 “無極即太極” “易有太極 是生兩儀”의 理論을 근거로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은 造物之初로 先天一氣가 化生하는 것이니 “因虛以化氣하고 因氣以造形”한다고 하였으며 “一分爲二”는 有象之始로 後天의 陰陽이 分離되는 것이니 “因形以寓氣하고 因氣以化神”한다고 하였다.

그는 “道者는 陰陽之理也오 陰陽者는 一分爲二也”라는 논점을 통해 “陰陽合一”과 “陰陽之氣 本同一體”의 思想을 強調하고 있는데 이러한 陰陽一體 思想은 景岳의 陰陽理論과 命門學說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4) 하소초 상게서 pp 250~251.

5) 하소초 상게서 pp 263

6) 하소초 상게서 pp 294

둘째 陽氣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는 “天地는 形體이고 交流하는 것은 乾坤으로써 하는데 乾坤은 작용하지 않고 坎離로써 交流케 하니 坎離의 道는 陰陽으로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해서 말해 본다면 陰은 陽으로써 主張을 삼으니 天地의 大德을 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저 생이라는 것은 陽, 奇, 一, 丹이다. 易에 萬象이 있지만 한 글자로 통합한다면 陽일 뿐이요 죽고 사는 것이 큰일이나 한 글자로 斷定한다면 또한 陽일 뿐이다.(天地는 形也니 其交也以乾坤이오 乾坤不用하고 其交也以坎離며 坎離之道는 曰陰曰陽而盡之라 然合而言之면 則陰은 以陽爲主하니 而天地大德曰生에 夫生也者는 陽也, 奇也, 一也, 丹也라. 《易》有萬象 而欲以一字統之者는 曰陽而已矣 오 生死事大 而欲以一字蔽之者는 亦曰陽而已矣라)”⁷⁾고 하여 陽의 作用을 強調하고 있다.

그는 陰은 陽의 命을 받들고 있고 陽의 強弱에 따라 進退하며 陽은 君子가 되고 陰은 小人이 되며 陰이 陽德을 무너뜨린다 하여 扶陽抑陰할 것을 특히 重視하고 있다. 그는 大寶論에서 形氣之辨 寒熱之辨 水火之辨으로써 陽이 造化의 根源이 되고 生命의 根本이 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形氣라는 것은 陽은 氣로 化하고 陰은 形을 이루니 形은 본래 陰에 속하고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陽氣이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陽氣이고 五官五臟의 神明을 헤아릴 수 없는 것도 陽氣이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靈적인 知的능력이 모두 사라지며 形體는 존재하나 氣는 떠나갔으니 이는 陽이 먼저 빠져나가고 陰이 뒤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形氣의 陰陽을 살펴 본 것이니 陰이 陽보다 많은 것이 아닌가 (夫形氣者는 陽化氣하고 陰成形하니 是形本屬陰而凡通體之溫者는 陽氣也 오 一生之活者는 陽

氣也 오 五官五臟之神明不測者는 陽氣也라 及其既死 則身冷如冰하고 靈覺盡滅하며 形固存而氣則去하니 此以陽脫在前 而陰留在後니 是形氣陰陽之辨也니 非陰多于陽乎아”⁸⁾

“寒熱이란 것은 熱은 陽이고 寒은 陰이다. 봄과 여름의 따뜻함은 陽이고 가을과 겨울의 차가움은 陰이다. 長夏의 더위를 맞아서 온 나라가 火爐와도 같다. 그 때에는 온갖 草木과 곤충들이 모두 썩는 듯한 더위에 고통을 받지만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번성하고 덥지 않으면 번성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하룻저녁의 風霜에 미쳐서는 말라붙은 잔해가 들판을 덮는다. 이에 熱은 物을 생할 수 있으되 過하게 熱하면 오히려 병이 되고, 寒은 생하게 하는 바가 없지만 過하게 寒하면 伐하여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즉 熱에는 傷함이 없지만 寒은 두려워할 만하니, 이것이 寒熱陰陽의 區分이 된다. (寒熱者는 熱爲陽이오 寒爲陰이며 春夏之暖은 爲陽이오 秋冬之冷은 爲陰이라 當長夏之暑하면 萬國如爐하고 其時에도 凡草木昆蟲이 咸苦煎炙라 然愈熱則愈繁하고 不熱則不盛이오 及乎一夕風霜하얀 卽僵枯遍野라 是熱能生物 而過熱者惟病이오 寒無生意 而過寒則伐盡이라 然則熱無傷而寒可畏니 此寒熱陰陽之辨也라)” 봄에 생하고 여름에 長하는 것은 陽熱이 만물을 生化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가을에 收하고 겨울에 藏하는 것은 陰寒에 생명력이 결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에 陽氣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景岳은 “水火의 水는 陰이고, 火는 陽이다. 造化의 권능은 오로지 水火에 달려있다. (水火者는 水爲陰이오 火爲陽也니 造化之權은 全在水火라)”고 하였다. 다만 그는 “天一生水의 天一은 天의 一이니 一은 즉 陽이다. 一이 없으면 단지 六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水가 만

7) 하소초 상계서 p287

8) 장개빈 유경도의 서울 성보사 1982 p441

9) 장개빈 상계서 p.441

물을 낳는 것은 이 一에 힘입는 것이고, 水가 氣를 化하는 것도 이 一에 힘입는 것이다.(天一生水에 天一者는 天之一也 一即陽也니 無一則止于六耳라 故로 水之生物者는 賴此一也 오 水之化氣者도 亦賴此一也라)”고 하였다. 비록 造化의 중심이 水火에 있지만 陰水가 또한 天一의 陽으로부터 生하므로, 水가 物을 生하는 바는 오직 그 陽氣를 품고 있음에 힘입고 水가 氣로 化하는 바도 또한 오직 陽氣에 힘입는 것이다.¹⁰⁾

이외에도 景岳은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바 “陽氣라는 것은 天과 日과 같아서 그 처소를 잃으면 壽命이 꺾여 昌盛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天運은 마땅히 日의 光明으로 이루어져야 한다.(陽氣者는 若天與日하니 失其所則折壽而不彰이라 故로 天運은 當以日光明)”는說에 근거하여 陽氣의 중요성을 한층 더 強調했다. 그는 “天의 큰 보배는 단지 이 하나의 둥그런 붉은 해이고, 사람의 큰 보배는 단지 이 一息의 眞陽이다(天之大寶는 只此丸紅日이오 人之大寶는 只此一息眞陽이라)고 하였고¹¹⁾ 역시 眞陰論에서 무릇 陽氣가 充滿하지 않으면 生하려는 뜻이 넓혀지지 못하거늘 하물며 양이 없음에 있어서라. 그러므로 陽은 오직 衰함을 두려워하고 陰은 오직 그 盛함을 두려워하니, 陰이 능히 스스로 盛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陽이 衰한 즉 陰이 盛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만물이 살아가는 것은 陽으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죽는 것도 또한 陽으로부터 말미암으니, 陽이 있으면 살고 陽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凡陽氣不充 則生意不廣이어늘 而況乎無陽乎아 故로 陽惟畏其衰하고 陰惟畏其盛하나니 非陰能自盛也오 陽衰則陰盛矣라 凡萬物之生은 由于陽하고 萬物之死도 亦由于陽하니 非陽能

死萬也라 陽來則生하고 陽去則死矣라.)”고 하였다¹²⁾. 景岳이 이처럼 陽氣의 중요성을 強調한 것은 朱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論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셋째 眞陰의 不足을 主張하였다.

眞陰은 일명 元陰 또는 眞精이라고도 하며 腎속에 존재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景岳은 眞陰論을 지어 陽非有餘할 뿐만 아니라 眞陰도 不足하다고 強調하였다.

그는 만물의 生死가 陽氣로 인하지만 陽氣의 뿌리가 陰이므로 실제 임상에서 陰虛病이 十中八九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의 “陰不可以無陽이니 非氣면 無以生形也오 陽不可以無陰이니 非形이면 無以載氣也”와 “陰以陽爲主 陽以陰爲根”이라는 陰陽互根의 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眞陰論》에서 그는 眞陰의 象, 臟, 用, 病, 治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眞陰之象에 대해 陰精 과 形質이 이에 해당하는데 陰精이 소모되면 陰虛하게 되고 陰虛則無氣하고 無氣則死하며 形肉이 已脫하더라도 死하므로 眞陰을 잘 보존해야 生命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眞陰之臟에 대해 五臟중에서도 특히 腎臟, 그 중에서도 水火를 갖추고 있는 命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眞陰之用에 대해 命門의 水火는 十二臟의 化源이 되어 “心賴之 則君主以明하고 肺賴之 則治節以行하고 脾賴之면 濟倉廩之富하고 肝膽賴之하면 資謀慮之本하고 膀胱賴之 則三焦氣化하고 大小腸賴之면 則傳導自分¹³⁾”한다고 하였다.

眞陰의 病에 대해 “眞陰은 본래 有餘하지 않으니, 陰病은 모두 不足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陰이 하부에서 勝하다는 것은 본래

10) 장개빈 상계서 p.441~442

11) 장개빈 상계서 p.443

12) 장개빈 상계서 p.442

13) 하소초 상계서 P317

陰이 勝하는 것이 아니라 命門의 火가 衰한 것이다. 陽이 標에서 勝하다는 것은 본래 陽이 盛한 것이 아니라 命門의 水가 虧損된 것이다. 水가 그 근원이 마르면 陰虛의 病이 계속 생기게 된다. 火가 그 근원이 衰하면 陽虛의 證이 많이 생기게 된다. 王太僕이 “寒하게 하되 寒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 水가 없음을 탓한다. 熱하게 하되 熱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 火가 없음을 탓한다.(寒之不寒은 責其無水오 熱之不熱은 責其無火라.)”고 했는데, 水와 火가 없는 것은 모두 命門에 달려 있으니 모두 陰虛의 病이라고 부른다.

眞陰의 治에 대해 “五臟은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데, 腎은 五臟의 근본이고 命門은 腎의 근본이며 陰精은 命門의 근본이다. 무릇 陰陽의 모든 病變은 水와 火를 함께 갖추고 있는 命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王太僕은 “壯水之主하여 以制陽光하고 益火之源하여 以消陰翳”라고 하였다. 嚴用和는 脾를 補하는 것이 腎을 補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고, 薛立齋는 八味丸과 六味丸으로 水와 火를 나누어 다스렸는데, 王太僕은 이런 방법들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陰精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景岳은 이처럼 眞陰을 중시했는데, 六味丸 또는 八味丸으로 眞陰을 기르는 것도 한편으로는 不足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眞陰이 虛해지면 다시 泄해서는 안 되는데 두 처방은 모두 茯苓, 澤瀉를 써서 滲利함이 太過하고 仲景의 『金匱要略』에서도 利水를 目的으로 사용했다. 비록 크게 補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조금 加한다고 무슨 해로움이 있겠느냐고들 한다. 그러나 補하는 힘을 줄이는 것을 避하지 못하게 되어 功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고 만다.(眞陰既虛하면 則不宜再泄이니 二方俱用 茯苓 澤瀉하여 滲利太過하니 卽仲景 『金匱』도 亦爲利水而設이라 雖曰于大補之中에 加此 何害리오하나 然未免減去補力하여 而奏功爲難

矣)”라고 하였다¹⁴⁾. 그리하여 景岳은 左歸丸, 左歸飲의 두 處方을 만들었는데, 前者는 左腎의 元陰을 기르고, 後者는 命門의 眞水를 기르는 것이다.

그는 元陽을 溫補하고 眞陰을 滋養하면 陰陽이 平衡을 이루어 水火既濟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오래된 질병도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IV. 命門에 대한 闡發

景岳은 前人들의 命門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命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후세의 医家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1. 命門은 人身의 太極으로 消長의 樞紐가 된다.

景岳은 周敦頤의 《太極圖說》에 있는 “太極이 動而生陽하니 動極而靜이오 靜而生陰하니 靜極復動이라 一動一靜이 互爲其根하여 分陰分陽에 兩儀立焉”이라는 論에 근거하여 太極一氣가 陰陽으로 나누어지고 이로부터 陰陽의 體象(體象之道는 自無而有者也라)을 이루며 陰陽體象의 生産은 先天無形으로부터 後天有形으로 轉化하는 過程을 밟으니 이는 곧 太極一氣가 “先天無形의 陰陽”을 이루고 이어서 “後天有形의 陰陽”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景岳은 《醫易義》에서 “因虛以化氣하고 因氣以造形”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思想의 바탕아래서 景岳은 命門을 人身의 太極에 비유하였고 陰陽消長의 기틀이 여기에 매어있다고 인식하였다.¹⁵⁾

14) 장개빈 상계서 p447

15) 구패연 정광적 주편 상계서 p350

《眞陰論》에서 그는 “腎에 있는 精室을 명문이라고 하니 天一이居하는 곳으로 眞陰之府가 된다. 精이 여기에 貯藏되어있으니 精은 陰中之水이고 氣가 여기에서 化生하니 氣는 陰中之火이다. 命門은 두 腎臟사이에 있으니 人身의 太極이 되고 太極에서 兩儀가 생겨나 水火가 갖추어지니 消長이 여기에 매이게 된다.”腎有精室을 是曰命門이니 爲天一所居로 卽眞陰之府라 精藏于此하니 精卽陰中之水也오 氣化于此하니 氣卽陰中之火也라 命門이 居兩腎之中하니 卽人身之太極이오 由太極以生兩儀하야 而水火具焉하니 消長繫焉이라.”¹⁶⁾고 하였고 三焦包絡命門辨에서 “命門象極하니 爲消長之樞紐”라 하였다.

또 景岳全書 傳忠錄 陰陽篇에서 “무릇 사람의 陰陽은 단지 氣血, 臟腑, 寒熱을 爲主로 말한다면 이는 後天有形의 陰陽일 뿐이요, 先天無形의 陰陽은 陽은 元陽이라 하며 陰은 元陰이라 한다. 元陽은 無形之火로 生과 化의 작용을 하니 神機가 이것이오 생명이 매어 있기 때문에 元氣라고 하며 元陰은 無形之水로 長과 立의 작용을 하니 天癸가 이것이오 인체의 強弱이 매어 있기 때문에 元精이라고 한다.(凡人之陰陽은 但知以氣血 臟腑 寒熱로 爲言하면 此特後天有形之陰陽耳오 至若先天無形之陰陽은 則陽曰元陽이며 陰曰元陰이라 元陽者는 卽無形之火로 以生以化하니 神機是也오 性命係之 故로 亦曰元氣며 元陰者는 卽無形之水로 以長以立하니 天癸是也오 強弱係之 故로 亦曰元精이라”고 하였다¹⁷⁾.

이는 命門이 太極이 되어 先天無形之陰陽인 元陰(元精), 元陽(元氣)을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氣血, 臟腑와 같은 後天有形之陰陽을 化生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2. 命門의 위치는 產門과 精關이다.

命門의 위치에 대해서 難經에서는 右腎을, 滑伯仁 虞搏은 兩腎을, 趙獻可는 兩腎之間을, 孫一奎는 腎間動氣라는 說을 主張하였는데 景岳은 특이하게도 出產시 아기가 나오는 產門과 남자에서는 精이 나오다 關문을 넘을 때 지각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는 子宮은 子戶, 玉房, 子腸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關元氣海處요 血室이요 先天眞一之氣가 머물고 있는 丹田으로 이 자궁아래 한 門이 있으니 여자는 손으로 더듬어 찾을 수 있으니 세속사람들이 產門이라고 부르는 곳이며 남자는 精液이 나올 때에 가로막고 있는 關문을 넘을 곳을 스스로 자각하는 곳(子宮之下에 有一門하니 其在女者는 可以手探而得하니 俗人名爲產門이며 其在男者는 於精泄之時에 自有關關知覺이라.)¹⁸⁾하였다.

3. 命門은 先天 后天, 立命之門戶가 된다.

景岳은 命門은 生殖과 生命의 存亡에 대단히 중요한 意義가 있음을 거듭 強調하여 “爲受生之初 爲性命之本”이라 일컫고 있다.

命門이란 生命이 出入하는 門戶로서 男子는 藏精하고 女子는 繫胞하고 있다고 하여 難經三十六難의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以繫胞”한다는 說을 계승하고 있다. 先天, 后天 立命의 門戶로써의 역할에 대해 “대저 몸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처음 부모가 交合할 때에 남자의 施泄이 이 문을 통해 나가며 여자의 받음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鬻속의 아기가 다 자라면 다시 이 문을 통해 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 이 문을 통하니 先天立命의 門戶가 아닌가 이

16) 장개빈 상계서 p.446

17) 장개빈 경약전서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7. pp4~5

18) 장개빈 유경도의 상계서 P437

미 태어나서는 三焦의 精氣가 모두 여기에 간직되는지라 그러므로 금단대요에 이르기를 氣가 모이면 精이 충만해지고 精이 충만하면 氣가 왕성해진다고 하였고 양구자는 사람의 목숨이 精에 매어 있다고 하였고 주옥집에서는 水는 天地人 三才의 근원이요 精은 元氣의 뿌리라 하니 이러한 즉 精이 사라지면 氣도 사라지고 氣가 사라지면 목숨도 끊어져 그 堅固함과 떠남이 모두 이 문으로 말미암으니 後天立命의 門戶가 아닌가? (“夫身形未生之初 父母交會之際에 男之施由此門而出하며 女之攝由此門而入하고 及胎元既足하면 復由此出하여 其出其入이 皆由此門하니 謂非先天立命之門戶乎아 及乎既生하얀 則三焦精氣가 皆藏乎此라 故로 金丹大要에 曰 氣聚則精盈하고 精盈則氣盛이라하고 梁丘子曰 人生係命於精이라하고 珠玉集에 曰 水是三才之祖요 精爲元氣之根이라하니 然則精去則氣去하고 氣去則命去하야 其固其去가 皆由此門하니 謂非後天立命之門戶乎아”)19) 라 하였다.

總括하건대 命門과 人身의 陰陽, 水火, 精氣 및 死生の 관계는 지극히 밀접하므로 景岳은 “命門者는 爲水火之府며 爲陰陽之宅이며 爲精氣之海며 爲死生之寶니 若命門虧損하면 則五臟六府 皆失所恃而 陰陽病變이 無所不至”라 하였고20) “精血之海 元氣之根”이라 하였으며 또 “命門은 爲元氣之根이며 爲水火之宅으로 五臟之陰氣가 非此不能滋하고 五臟之陽氣가 非此不能發”21)이라 하였다.

4. 命門과 腎과의 관계

門과 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문과 腎에 대한 역대 命門說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腎은 水를 主하고 命門은 火를 主하는데 腎水를 眞

陰, 元陰, 元精이라 하고 命門火를 相火, 元陽, 元氣라 부른다. 이들은 상호 작용하여 生命의 근본이 되고 化生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景岳의 命門說은 이와는 좀 달라 命門속에 元精과 元氣가 모두 있고 이는 腎臟의 精氣에 의해서 滋養되며 腎臟의 精氣는 다시 命門의 元精과 元氣에 의해서 化生된다는 것이니 이른바 “命門與腎 本同一氣”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難經의 “命門者.....其氣與腎通”과 같은 내용이다.

景岳은 命門과 腎의 관계를 坎卦로 설명하고 있다.

“물의 象은 맑은 어둡고 안은 밝으며 坎卦는 가운데는 陽爻이고 밖은 陰爻니 두개의 腎臟은 坎卦밖의 陰爻이고 하나의 命門은 坎卦가운데의 陽爻이다. 하나로써 둘을 통솔하고 둘로써 하나를 싸니 命門은 兩腎을 總括하고 兩腎은 모두 命門에 속한다.(水象은 外暗而內明하며 坎卦는 內奇而外偶하니 腎兩者는 坎外之偶也요 命門一者는 坎中之奇也라 一以統兩하고 兩以包一하니 是命門은 總主乎兩腎 而兩腎은 皆屬于命門이라)”22) 이는 腎과 命門은 一而二, 二而一의 관계로 나누어지면서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5. 命門의 陰陽은 體用이 一原이다.

陰陽은 본래 一體이기 때문에 景岳이 眞陰과 眞陽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지만 또 命門의 元精과 元氣를 합하여 眞陰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그것이 인체의 가장 基本되는 물질로서 陰氣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景岳全書 傳忠錄 陰陽篇에서 “眞陰者는 卽 眞陽之本也라 夫水火가 皆宅于命門하니 析之則二오 合之則一이라 …… 其在人身하얀 爲性命之根

19) 장개빈 유경도의 상계서 PP.437~438

20) 장개빈 유경도의 상계서 P.439

21) 장개빈 경약전서 상계서 P.53

22) 장개빈 유경도의 상계서 p.431.

根며 爲臟腑之化源”이라고 하였다. 命門의 水가 眞陰이 되고 命門에 붙어있는 火는 相火가 된다. 景岳은 傳忠錄 君火相火論에서 “大體를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相火는 마땅히 命門에 있으니 뿌리가 아래에서 枝葉의 근본이 된다고 이르는 것이다. 직책을 분석하여 말한다면 臟腑에 각각 君火相火가 있으니 志意가 나오매 形質을 쫓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蓋總言大體 則相火當在命門이니 謂根莖在下하여 爲枝葉之本也 析言職守 則臟腑各有君相이니 謂志意所出에 無不從形質也라)”²³⁾ 하였다. 이러한 논술은 景岳의 이른바 “體用一原 顯微無間”(類經圖翼 陰陽體象)의 관점을 충실히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相火는 命門의 眞陰에서 發原하기 때문에 그는 病理의인 火와 엄격히 구별하여 “凡火之賊傷人者는 非君相之眞火요 無論在內在外 皆邪火耳라 邪火는 可言賊이어나와 相火는 不可言賊也라”²⁴⁾고 하였다. 이는 李杲 朱震亨이 內傷病變의 火를 相火라고 혼동하여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差異가 없으니 李杲가 “相火爲元氣之賊”이라 한 것을 景岳이 邪火라고 불렀을 뿐이다. 景岳이 이와 같이 나는 意圖는 理論上 生理의인 火와 病理의인 火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目的 외에 또한 임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邪正을 분명히 구별하여 苦寒한 藥을 남용하지 않고 陽氣를 온전히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V. 圖書와 卦圖의 醫學的活用

景岳은 河圖, 洛書, 八卦圖, 六十四卦圖 등

을 運用하여 醫學의 이치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그의 醫易學說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보다 앞서 張行成, 俞琰, 張理 등의 易學家들은 이미 사람의 생리구조를 결합하여 先天圖와 河圖, 洛書 등을 설명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學風은 元明代에 이르러 醫學界에서 易理로써 醫理를 解釋하는 流派를 形成하였는데 이는 象數學派의 하나의 分支라고 할 수가 있다. 漢代에 형성된 《黃帝內經》은 漢易과 卦氣說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여러곳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後代의 內經註釋家들은 易學中の 理論과 《易傳》 또는 卦氣說 등으로 內經의 原文 특히 陰陽說 등을 解釋하였는데 이는 象數之學으로써 醫學理論을 解釋하는 歷史가 오래 되었음을 의미한다²⁵⁾.

宋代에 이르러 象數之學은 陳搏, 邵雍, 朱熹 등에 의해 새로운 발전이 있었고 이후의 醫家들은 이러한 내용을 흡수하여 醫學에 援用하였는데 明代의 張介賓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邵雍을 推崇하여 “數學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리오 진실로 능히 貫通한다면 숨고 드러나고 높고 낮은 것을 회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요 天地의 攄과 象數의 많음도 하나로 인해 推理할 수 있으리니 이에 밝았던 者는 歷代 聖人 이하로 오직 邵康節 선생 한사람 뿐인저 (數之爲學을 豈易言哉리오 苟能通之면 則幽顯高下를 無不會通而天地之大와 象數之多를 可因一而推矣리니 明乎此者는 惟康節先生一人哉인저)”²⁶⁾라 하였다. 그는 內經을 註釋하는데 있어서도 邵氏의 說과 圖書之理를 많이 活用하였으며 심지어 그의 學說속에는 道家의 內煉說도 引用하고 있는데 이것도 象數易學과 관련성이 깊다.

景岳의 醫易著作중에는 太虛圖, 陰陽圖, 河圖, 洛書, 伏羲八卦次序圖, 伏羲八卦方位圖, 文

23) 張介賓 景岳全書 上揭書 p. 32.

24) 張介賓 景岳全書 上揭書 p. 33.

25)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三卷 北京華夏出版社 1995. pp.310~311.

26) 張介賓 類經圖翼 상계서 p.33.

王八卦次序圖, 文王八卦方位圖, 伏羲六十四卦圓圖, 伏羲六十四卦方圖 등이 실려있고 이를 통해 氣機의 昇降, 陰陽의 消長, 사람의 生命變化過程 등을 解釋하고 있는데 以前の 醫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獨步의인 내용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河圖, 洛書로 陰陽, 五行을 해석함.

河圖에 대해 類經圖翼 五行生成數解에서 “五行之理는 原出自然하고 天地生成은 莫不有數하니 聖人이 察河圖而推定之라 其序에 曰 天一生水에 地六成之하고 地二生火에 天七成之하고 天三生木에 地八成之하고 地四生金에 天九成之하고 天五生土에 地十成之라”²⁷⁾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음양, 오행을 결합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또 기수통론에서는 “陽數는 奇而屬天하고 陰數는 偶而屬地라 天圓은 徑一而圍三하니 三各一奇 故로 曰參天이라 三三而九니 陽數從此而流行하며 地方은 徑一而圍四니 四爲二偶, 故로 曰兩地라 二四合六이니 陰數는 從此而凝定이라 三二相合하면 是爲五數 故로 圖書之數는 皆以五居中也라 河圖는 以天一生水에 一得五而六 故로 地以六成之而居北하고 地二生火에 二得五而七, 故로 天以七成之而居南하고 天三生木에 三得五而八 故로 地以八成之而居東하고 地四生金에 四得五而九, 故로 天以九成之而居西하고 天以五生土에 五得五爲十 故로 地以十成之而居中이라 生數는 爲主而居內하고 成數는 爲配而居外하니 此則河圖之定數也라 若以陰陽之次第老少로 參之 則老陽位一而數九하고 少陰位二而數八하고 少陽位三而數七하고 老陰位四而數六이라 陽主進 故로 由少陽之七로 逾八至九而其進已極, 故로 老

陽이오 陰主退 故로 由少陰之八로 逾七至六而其退已極 故로 老陰이라 陽數長 故로 少陽之七은 長于六하고 老陽之九는 長于八하며 陰數消, 故로 少陰之八은 消于九하고 老陰之六은 消于七하니 此陰陽老少 消長進退之理也라 故로 河圖는 以老陽之位一而配老陰之數六하고 少陰之位二而配少陽之數七하고 少陽之位三而配少陰之數八하고 老陰之位四而配老陽之數九하니 是又河圖陰陽互藏之妙也라”²⁸⁾ 하였다.

洛書에 대해서도 그의 著書의 많은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素問·三部九候論》의 “天地之至數 始于一 終于九”에 대한 註를 달 때에 洛書의 原理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醫易義》에서 腎藏精, 心藏神, 肝藏魂, 肺藏魄, 脾藏意의 原理를 설명하고 있다.

2. 伏羲八卦와 文王八卦에 대한 解釋

景岳은 醫易義에서 伏羲八卦는 陰陽의 體象을 나누고(分陰陽之體象) 文王八卦는 五行의 精微를 밝힌다고 하였고 또 伏羲八卦는 先天圖로써 乾坤으로 天地를 나누어 上下의 位置를 定하고 文王八卦는 後天圖로써 坎離로 水火를 나누어 南北을 定한다고 하였다. 또 先天은 乾이 正南에 居하고 坤이 正北에 居하니 陽이 남쪽에 있고 陰이 북쪽에 있으며 後天은 乾이 西北에 있고 坤이 西南에 있어 陽이 북쪽에 있고 陰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先天은 巽離兌가 비록 陰卦이지만 乾體에 根本하고 있어 위에 자리하고 震坎艮이 비록 陽卦이지만 坤體에 根本하여 아래에 자리한다 하였다. 後天은 乾이 坤에 와서 交合하여 坎水로 化하여 북쪽에 居하고 坤이 乾에 가서 交合하여 離火로 變하여 남쪽에 居하니 天體는 북쪽으로 기대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乾이

27) 張介賓 類經圖翼 상계서 p.7.

28) 張介賓 類經圖翼 상계서 p.30.

西北으로 退位하였고 地體는 土에 속하고 火를 잇고 있기 때문에 坤은 西南에 붙어 자리 잡았으며 巽이 東南에 居하는 것은 木이 火에 앞서 자리잡은 것이고 艮이 東北에 그쳐 있는 것은 坤方에 마주하기 때문이며 乾父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坎艮震 三子가 이를 좇아 아래에 居하고 坤母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巽離 兌 三女가 이를 좇아 上을 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先天은 上下로 左右를 나누기 때문에 乾坤이 세로축에 있고 六子가 橫列하며 後天은 東西로 陰陽을 나누기 때문에 震兌가 橫이 되고 六卦가 縱이 된다고 하였다. 先天은 乾坤之末에서 二至(冬至, 夏至)와 交하므로 離는 太陽이 되어 東쪽에서 떠오르고 坎은 달이 되어 서쪽에서 뜨며 後天은 震兌가 二分(春分, 秋分)에 해당하므로 震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서 巽離는 木火之位가 되고 兌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乾坎은 金水之鄉이 되므로 說卦傳에서 말한 帝出乎震에서 成言乎艮은 東南春夏之盛과 西北秋冬之衰를 밝힌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先天은 六合之象을 말한 것이고 後天은 氣候之詳을 밝힌 것으로 소자의 선천은 易之體요 후천은 易之用이란 말이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상은 유경도익의 卦氣方隅論에 있는 내용인데 팔괘도에 대한 그의 높은 식견을 살펴볼 수 있다.

3. 伏羲六十四卦方圓圖를 解說함

景岳은 六十四卦가 이루어 저야만 사람과 만물이 이를 통해 모두 이루어 지게 되고(人物由之而成) 만물의 형상이 이로 인해 모두 갖추어 진다(萬物象因之以畢具)고 하면서 六十四卦圓圖에 대해 이 卦圖의 奧妙함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是圖는 雖象乎萬有나 尤切夫人之一身이라 故로 曰 先天圖者는 環中也니 環中者는 天之象也라 六十四卦가 列于外는 昭陰陽交變之理也오 太極이 獨運乎其中은 象心爲一身之主也라 乾南坤北者는 象首腹之上下也오 離東坎西者는 象耳目之左右也라

自"復"至"同人"은 當內卦震離之地니 爲陰中少陽之十六으로 在人爲二八이오 自"臨"至"乾"은 當內卦兌乾之地니 爲陽中太陽之十六으로 在人爲四八이오 自"姤"至"師"는 當內卦巽坎之地니 爲陽中少陰之十六으로 在人爲六八이오 自"遯"至"坤"은 當內卦艮坤之地니 爲陰中太陰之十六으로 在人爲八八이라 陽生于"子"而極于"午" 故로 "復"曰"天根"이니 至"乾"爲三十二卦가 以應前之一世하고 陰生于"午"而極于"子" 故로 "姤"曰"月窟"이니 至"坤"爲三十二卦가 以應後之半世라 前一世는 始于"復"之一陽하야 漸次增添하야 至"乾"而陽盛已極하니 乃象人之自少至壯하고 後半生은 始于"姤"之一陰하야 漸次耗減하야 至"坤"而陽盡以終하니 乃象人之自衰至老라.

縱觀之, 則象在初爻하니 其"乾"盡于午하고 "坤"盡于子하야 當"二至"之令하니 爲天地之中而左右以判이라 左主昇而右主降하니 昇則陽居東南하니 主春夏之發生하야 以應人之漸長하고 降則陰居西北하니 主冬秋之收斂하야 以應人之漸消라

橫觀之, 則象在二爻하니 其"離"盡于卯하고 "坎"盡于酉하야 當"二分"之中하니 爲陰陽之半而上下以分이라 上爲陽而下爲陰이니 陽則日出于卯하야 以應晝之爲寤하고 陰則日入于酉하야 以應夜之寐焉이라 卽此一圖면 而天下之妙와 運

29) 하소초 상계서 pp.257~261.

氣之理가 無不具矣라

再閱方圖컨데 其義象地라 乾始于西北하고 坤盡于東南이라 天不足西北 故로 圓圖之陽은 在東南하고 地不滿東南 故로 方圖之剛은 在西北이라 是皆伏羲之卦也라

解釋: 이 그림(64卦 圓圖)은 비록 존재하는 萬物을 象徵하고 있으나 더욱 사람의 한 몸에 절실하다. 그러므로 先天圖는 가운데를 등글게 에워쌌으니(環中) 가운데를 둘러싼 것은 하늘의 모습이다. 64卦가 밖에 배열된 것은 陰陽이 사귀어 변화하는 이치를 밝힌 것이요 太極이 홀로 그 가운데에서 운행하는 것은 마음이 한몸의 주인이 됨을 象徵한다. 乾卦가 南쪽, 坤卦가 北쪽에 있는 것은 머리와 배가 위아래에 있는 것을 象徵하고 離卦가 東쪽에 坎卦가 西쪽에 자리한 것은 귀와 눈이 좌우에 있음을 상징한다. 復卦에서 同人卦 까지는(北에서 東까지의 16卦) 內卦가 震卦 離卦니 陰中少陽의 16卦로 사람에게서는 1歲에서 16歲까지의 나이에 해당하고 臨卦에서 乾卦까지(東에서 南까지의 16卦)는 內卦가 兌卦 乾卦니 陽中太陽의 16卦로 사람에게는 17歲에서 32歲까지의 나이에 해당하고 姤卦에서 師卦까지(南에서 西까지의 16卦)는 內卦가 巽卦, 坎卦니 陽中少陰의 16卦로 사람에게는 33歲에서 48歲까지의 나이에 해당하고 遯卦에서 坤卦까지(西에서 北까지의 16卦)는 內卦가 艮卦, 坤卦니 陰中太陰의 16卦로 사람에게는 49歲에서 64歲까지의 나이에 해당한다. 陽은 子에서 始生하여 午에서 극대화 되기 때문에 復卦를 天根이라 하니 乾卦까지 32卦가 사람의 前半生에 해당되고 陰은 午에서 始生하여 子에서 극대화 되기 때문에 姤卦를 月窟이라 하니 姤卦에서 坤卦까지의 32卦가 사람의 後半生에 해당 된다. 前半生은 復에서 始生한 一陽이 점점 자라나서 乾卦에서 陽의 盛함이 극해지니 사람이 어려서부

터 장성하는 것을 象徵하고 後半生은 姤에서 始生한 一陰에 의해 점점 耗損되어 坤卦에서 陽이 없어져 마치니 사람이 쇠약해져서 늙는 것을 象徵한다.

세로로 볼것 같으면(圓圖를 左右로 돌려 나누어 보는 것) 象徵이 初爻에 있으니(復卦에서 乾卦까지 각卦의 初爻가 모두 陽爻이고 姤卦에서 坤卦까지 각卦의 初爻는 모두 陰爻이다) 乾卦는 午位에서 극진해지고 坤卦는 子位에서 극진해지니 夏至 冬至의 節氣에 해당하니 天地의 가운데가 되어 左右가 갈라진다. 左側은 上昇을 주장하고 右側은 下降을 주장하니 올라가면 陽이 東南쪽에 거처하니 春夏의 발생을 주장하여 사람이 점차 자라나는 것에 相應하고 내려오면 陰은 西北쪽에 거처하니 가을 겨울의 收斂을 주장하여 사람이 점차 늙어가는 것에 相應한다.

가로로 볼것 같으면(圓圖를 上下로 돌려 나누어 보는것) 象徵이 二爻에 있으니(臨卦에서 師卦까지 각卦의 二爻는 모두 陽爻이고 遯卦에서 同人卦까지의 각卦의 二爻는 모두 陰爻이다) 離卦는 卯位에서 극진해지고 坎卦는 酉位에서 극진해지니 春分, 秋分의 가운데에 해당하니 陰陽의 孚이 되어 上下로 나누어진다. 上은 陽이 되고 下는 陰이 되니 양은 卯位에서 해가 떠서 낮의 깨어 있는 상태에 相應하고 陰은 酉位에서 해가 저서 밤의 잠자는 것에 相應한다. 이 한 그림을 보면 天下의 오묘함과 運氣의 이치가 갖추어 지지 아니함이 없다.

다시 方圖(64卦 方圖)를 보는데 그 뜻은 땅을 象徵하고 있다. 乾卦는 西北에서 시작하고 坤卦는 東南에서 다하고 있다. 하늘은 西北쪽이 不足하기 때문에 圓圖의 陽은 東南쪽에 있고 땅은 東南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方圖의 剛은 西北쪽에 있다. 이것은 모두 伏羲氏가 그린卦이다.

우리는 景岳의 이러한 方圓圖에 대한 설명

을 통해 氣機의 昇降, 陰陽二氣의 消長變化, 그리고 특히 方圓圖와 人體의 關聯性에 대하여 一目瞭然하게 파악할 수 있다.

등을 설명하는데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그의 醫易學의 중요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전부터 醫家들 사이에서 전승되던 象數易學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VI. 結 論

醫易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당시까지의 醫易에 관한 연구를 총결하여 醫易學을 대성한 張介賓(1563~1640)의 醫易思想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張介賓은 明代의 뛰어난 醫家로써 內經을 類編하여 注釋한 《類經》과 綜合醫書인 《景岳全書》 등에 易學의 이론을 많이 活用하였으며, 《類經圖翼》 속에서는 《醫易義》를 위시하여 《太極圖論》 《陰陽體象》 《大寶論》 《眞陰論》 등에서 醫易學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기술하였다.

2. 張介賓은 醫易相通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易具醫之理하고 醫得易之用이라하여 醫師는 易을 배워야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張介賓은 陰陽의 理論을 특히 중시하였으며 陽非有餘論, 眞陰不足論 등을 설명하면서 易學의 扶陽抑陰 陰陽互根 등의 理論을 活用하고 있다.

4. 張介賓은 命門은 人體의 太極으로 先天無形의 陰陽을 化生하여 後天有形의 陰陽을 이루는 根源이 되므로 人身의 消長變化가 여기에 매여 있다고 하였다.

5. 張介賓은 河圖 洛書 八卦 六十四卦方圓圖 등을 깊이 연구하였고, 이를 人體의 생리

VII. 參考文獻

1.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3.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5. 朱伯崑, 易學哲學史, 제3권, 北京, 華夏出版社, 1995.
6. 何少初, 古代名醫解周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